

職業의 社會經濟的 屬性과 階級區分

金 璞 東

(서울大 社會大 教授)

崔 泰 龍

(서울大 社會大 博士過程)

- | <차
례> | |
|--------------------|-------------------|
| 1. 資料의 性格 | 4. 직업분류에 의한 계급법주화 |
| 2. 概念의 틀 | 5. 討 論 |
| 3. 학력, 직업 및 소득의 관계 | |

직업에 대한 社會學的 관심은 몇 가지 상호연관된 쟁점들로 쓸린다. 첫째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사회적 正體意識이 직업이라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地位의 媒介를 통하여 형성, 유지, 변화된다는 측면이다(Gross, 1965). 둘째, 역시 미시적인 차원의 쟁점으로, 개인의 직업적 이력 내지 경력(career)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週期 내지 삶의 經路(life cycle, life course)의 유형을 파악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삶의 경험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Miller and Form, 1964). 셋째는, 직업활동의 사회적 맥락인 일터(work place) 또는 직장조직체(work organizations) 안에서 개인이 일과 직무에 적응, 만족, 몰입하는 양상과, 거기서 생기는 개인적 직업적 욕구와 조직체의 목표 사이의 긴장, 조직체 안에서의 직업적 분업에 따른 지위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등의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Gross, 1965).

시야를 좀더 넓혀서 직업의 사회학적 의의를 다룰 때는, 넷째로, 직업의 專門性(professionalism)과 관련, 사회변동과 직업분화 및 전문성의 전개의 문제를 관심사로 삼기도 한다(Pavalko, 1971). 다섯째, 역시 사회변동과 직업분화의 문제 중 특히 공업화에 따른 직업의 분화와 특수화, 전문화의 양상 자체가 경제성장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Moore, 1965; Harvey 1975). 여섯째로는, 직업의 계층적 내지 계급적 성격에 대한 관심

을 들 수 있다(Blau and Duncan, 1967; Wright, 1980). 이 경우 계층 또는 계급적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되는 변수로서 직업을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는 게 보통이다. 일곱째, 이와 관련해서 직업적 意識 또는 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직업관 같은 것을 통하여 그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Hodge, et al., 1966).

이 밖에도, 직업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의 사회학적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일의 의미, 일의 종류, 일과 여가, 일과 은퇴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Morse and Weiss, 1955; Dubin, 1976).

이 연구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직업연구의 범주 가운데서 마지막 두 가지, 즉 여섯째와 일곱번째의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직업의 사회 경제적 속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직업이 계층 내지 계급구조의 형성 또는 측정의 요소로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 직업관, 직업에 따른 의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서, 그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간접적인 평가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방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런대로 눈에 띠는 바 있다.¹⁾ 그러나 이번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한 전국 표본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과,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포함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1. 資料의 性格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의 원천과 그 성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자료는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에서 실시한 두 가지 별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1980년 여름 전국성인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한 「韓國教育의 診斷과 處方—學校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1년 여름 역시 전국의 성인표본에 대하여 실시한 「社會發展과 國民意識에 관한 調査研究」라는 주제의 연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주제로 이 연구의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황성모(1963); 김진균(1968); 최홍기(1969); 김경동(1970); 김경동, 이해영 외(1970); 최홍기(1970); 홍승직·노길명(1976); 김경동(1979a; 1979b); Kim (1979) 등이다.

구이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前者를 「교육연구」(1980), 後者를 「社會發展研究」(1981)로 約칭 할 것이다.

표본추출 방법은 두 연구 모두 거의 같은 원칙에 따라 多段階 集落, 層化, 無作為 表集法의 混用이었고, 주로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郡部의 세 범주로 나눈 다음 각기 범주에 대하여 다시 중부, 서남, 영남의 3개 지역군으로 분류, 충화집락 표집하였다. 郡部에서는 다시 읍과 면을 따로 표집하였고, 市에서는 區와 洞을

〈표 1〉 分析資料의 標本 概要

	교 육 연 구 (1980)	사회 발 전 연구 (1981)	교 육 연 구 (1980)	사회 발 전 연구 (1981)
I. 表集地域			III. 年令分布 (%)	
大都市			20세 미만	.5 3.3
서울	404	301	20~29세	11.6 29.8
부산		145	30~39岁	30.9 23.9
대구		120	40~49岁	36.7 22.2
광주		67	50~59岁	17.3 14.3
中小都市			60세 이상	3.0 6.4
(中部)			계	100.0 100.0
수원	52		IV. 學歷 (%)	
춘천	57	84	無學歷	4.4 7.3
(西南)			國民學校	19.1 24.2
대전	58		中學校	17.9 20.7
전주	60		高等學校	30.4 30.9
목포	98		2年制, 專門大學	4.6 8.
여수		44	4年制大學	20.1 8.3
(嶺南)			大學院	2.7 .5
포항	119		無應答	.8 .1
진주	59		계	100.0 100.0
진해		76	V. 月平均家族所得(%)	
郡部			10만원 미만	14.0 11.9
(中部)			10~20만원	33.7 29.2
용인, 양양, 보은	153		20~30만원	19.8 25.7
음성, 원성, 단양,		161	30~40岁	10.8 11.5
파주			40~50岁	8.4 6.3
(西南)			50~100岁	9.5 3.1
서천, 임실, 구례	167		100만원 이상	3.7
무안, 완주, 부여		199	무응답	—
보령			계	100.0
(嶺南)				
성주, 하동	179			
청송, 의성, 거창,		143		
밀양				
計	1,526	1,220		
II. 性別分布 (%)				
남자	52.5	56.9		
여자	47.5	43.1		
계	100.0	100.0		

표집하였다. 이 단위에서 다시 統班을 골라 각 통반에서 주민등록부에 의거 家口를 선정한 다음 가구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은 표본의 성격은 대략 다음 <表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역별 분포는 처음부터 인구비례로 대충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남녀비율은 두 조사 모두 남자가 약간 더 많이 표집된 셈이다. 그러나 연령 분포에서는 교육연구보다 사회발전연구의 표본이 대체로 젊고, 교육연구에서는 3,40대가 압도적이다. 학력도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소득 면에서는 전자가 오히려 중간층보다 하부와 상층이 조금 비대한 점이 특색이다. 사회발전연구의 경우, 이들 여러 가지 특징을 全國分布와 비교해 본 결과, 크게 오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 표본이 완벽하게 전국 성인인구의 대표가 되리라는 주장은 삼가는 게 좋겠다. 다만 표집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2. 概念의 틀

여기서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직업을 社會階層 또는 社會階級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학의 일반적 관례가 얼마만큼 經濟的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는 것인가를 살펴 보려는 데 있다. 이 때 사회계층 또는 계급 또는 社會經濟的 地位의 한 구성요인이라고 하는 뜻은 적어도 두 가지 수준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나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이 곧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실재적인 현상을 지칭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보기이다. 달리 말해서, 한 개인(또는 그의 가족)의 사회계층(계급)적 지위는 그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 가정을 품는 그런 해석이다.

두번째의 의미는 직업이라는 變數가 어떤 개인이나 그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계급)적 지위를 측정, 확인하는 데 가장 유용한 指標가 된다는 뜻이 된다. 앞의 것은 實在的 차원에서, 뒤의 것은 概念的 차원에서 직업이 계층적 지위의 구성요인이라는 뜻이라는 말이다. 물론 앞의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뒤의 것에 의존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회경제적 지위라든가, 사회계층적 지위는 주로 개인이나 가족들의 단위를 上下序列的으로 분류하는 개념인 데 반해서, 사회계급이란 그처럼 수직

적 분화로 구분되는 범주들의 사회구조적 특이성을 인정하는 접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며, 그것은 또한 經濟的인 차등을 핵심으로 삼는 구분이다(김경동, 1980; 홍두승, 1983).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계층적 분류도 살펴 보겠지만 주로 계급적 구획에서 직업이 어떤 구실을 하는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계급이 경제적 분류개념이라고 해도 어떤 경제적 변수가 그 분류를 구조적으로 의미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K. Marx의 資產所有의 관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市場能力(the market capacity)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고, 이에 관해서는 자세한 해설을 피하고자 한다(김경동, 1980; Giddens,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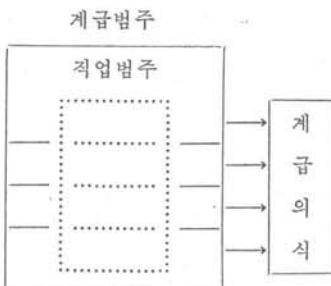
시장능력의 경험적 지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의존하는 것이 學歷 또는 教育程度이다. 사실 이 교육 변수도 단순한 학교교육 이수의 수준이라는 量的 개념만으로는 미흡할지라도, 數量的 자료의 경우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이 직업을 좌우해 주는 기본적인 변수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이번에는 所得水準이 좌우된다. 소득은 시장능력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소득은 그 자체 하나의 시장능력의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직업적 지위로서 계급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그 직업활동에서 얻는 경제적 보상, 즉 수입으로 그가 속한 계급적 지위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수단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世代間 移動에 기여하는 결정적 시장능력으로서 소득이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학력, 직업, 소득의 세 변수의 관계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단순화해서 상정하고, 통제적인 분석을 통해 그 관계의 뜻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대한 객관적 접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계급적 속성을 다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직업의 종류를 제분류하면 계급범주를 구성하도록 의미있는 전환이 가능한가 하는 쟁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구획지은 계급범주들은



<그림 1>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



〈그림 2〉 직업과 계급과 계급의식

각기 특유의 계급의식을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도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도해 온 보기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것을 도식화해서 요약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력, 직업 및 소득의 관계

우선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으로서 계급적 특성을 내포하는 두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되, 두 종류의 자료분석을 시도했다. 첫째는 단순한 변수간 交叉表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직업 범주에 따른 학력, 소득 點數의 비교이다. 자료의 원천은 앞서 소개한 교육연구 및 사회발전연구 두 가지이다.

우선 〈표 2〉와 〈표 3〉을 살펴 보자. 직업을 인구센서스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나누고 그 서열적 지위순으로 대략 나열한 다음 학력과 소득(월평균 가족수입)을 교차시켜 얻은 자료를 담은 표들이다. 두 표에는 평균치보다 높은 백분비를 얻은 사례들만을 따로 구획짓는 금을 그어 놓았다. 그 구획 속에 들어가는 백분비가 말하자면 직업과 학력, 직업과 소득의 두 쌍의 변수들 간의 상관도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다. 이런 경우가 많고 구획 밖의 사례들이 적을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도는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1대 1의 상관도를 가졌더라면 구획진 부분이 최소한으로 줄어 들고 그 속에 모든 백분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획의 범위가 크고, 구획 밖의 백분비가 많을 때는 그만큼 상관도가 낮아지고, 구획 밖의 것들은 일종의 오차가 된다. 이것을 재는 통계치 중 Kendall's tau C가 있는데, 그것은 그

〈표 2〉 직업별 학력 및 소득분포(교육연구) (%)

직업	농업적 직	판매· 서비스 직	생산적 직	사무적 직	기술적 직	문 학 적 직	관리적 직	전문적 직	계
[학 력]*									
무학력	10.4	1.4	3.8	—	—	.6	—	—	4.2
국민학교	38.5	20.0	15.0	3.3	1.8	1.2	—	—	18.6
중학교	25.5	22.4	41.3	6.7	7.2	6.4	5.0	17.8	
고등학교	22.2	41.9	37.5	48.8	31.5	24.9	13.8	30.9	
전문(초급)대학	1.4	3.8	1.3	7.2	16.2	8.7	3.8	5.0	
대학 이상	2.1	10.5	1.3	34.0	43.2	58.4	77.5	23.4	
계	100.1	100.0	100.2	100.0	99.9	100.2	100.1	99.9	
N =	483	210	80	209	111	173	80	1,346	
[월 평균가족소득]**									
10만원 미만	30.3	6.2	10.0	3.8	2.7	2.3	2.5	13.7	
10~20만원	41.1	40.0	48.8	37.5	20.7	11.6	7.6	33.4	
20~30 //	15.4	21.9	23.8	28.8	32.4	12.1	12.6	19.8	
30~40 //	6.0	12.4	8.8	14.4	18.9	15.0	12.6	11.1	
40~50 //	3.9	11.0	3.8	10.6	11.7	15.6	15.2	8.9	
50~100 //	2.1	6.2	3.8	3.8	11.7	31.8	35.4	9.7	
100만원 이상	1.2	2.4	1.3	1.0	1.8	11.6	13.9	3.5	
계	100.0	100.1	100.3	99.9	99.9	100.0	99.8	100.1	
N =	482	210	80	208	111	173	79	1,343	

* tau C=.46

** tau C=.35

오차의 수가 많고 적은 데 따라 상관도의 크기를 말해 주는 측정치이다.

교육연구의 자료에서는 tau C 값은 .46과 .35로 그 자체는 오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사회발전연구의 자료를 보면 tau C 값이 .18과 .15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교육연구 자료의 오차가 적고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 된다. 어쨌든, 전반적인 경향은 물론 직업과 학력, 직업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확인됨에 틀림없다. 그러나 굳이 tau C 값을 비교해 보고, 오차의 개념까지 도입하는 까닭은, 교육→직업→소득의 관계가 결코 완벽한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좀더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들 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농어업직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과 20만원 이상의 수입, 판매·서비스직의 대학이상 학력과 30만원 이상 소득이 우선 눈에 걸리는 「오차」들이다. 사무직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두드러지고,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의 상위 직업 범주에서 눈에

〈표 3〉 직업별 학력 및 소득분포(사회발전연구) (%)

직업	농어업 직	판매· 서비스 직	생산적 직	사무적 직	기술적 직	물 관리적 직	전문적 직	계
〔학력〕*								
무학력	16.3	6.8	3.0	—	—	—	—	7.4
국민학교	44.2	29.5	19.7	3.7	3.8	9.5	—	25.3
중학교	21.0	25.8	36.3	13.7	11.3	11.9	19.2	21.3
고등학교	15.4	29.5	37.9	64.2	30.2	38.1	30.8	31.6
전문(초급)대학	1.7	5.3	1.5	12.8	26.4	16.7	7.7	7.2
대학 이상	1.3	3.2	1.5	5.5	28.3	23.8	42.3	7.2
계	99.9	100.1	99.9	99.9	100.0	100.0	100.0	100.0
N =	233	190	66	109	53	42	26	719
〔월평균가족소득〕**								
10만원 미만	37.4	17.0	10.8	4.7	1.9	—	4.2	18.4
10~20만원	35.6	31.4	41.5	32.1	21.2	7.1	25.0	31.3
20~30%	15.8	25.0	27.7	28.3	30.8	16.7	4.2	22.0
30~40%	5.8	12.8	9.2	16.0	13.5	19.0	20.8	11.4
40~50%	2.2	5.9	10.8	11.3	1.9	16.7	16.7	6.7
50~70%	1.8	3.7	—	2.8	13.5	23.8	12.5	4.9
70~100%	.4	2.1	—	—	7.7	7.1	4.2	1.9
100만원 이상	.9	2.1	—	4.7	9.6	9.5	12.5	3.3
계	99.9	100.0	100.0	99.9	100.1	99.9	100.1	99.9
N =	222	188	65	106	52	42	24	699

* tau C=.18

** tau C=.15

띄는 저학력, 저소득 총이다. 이런 현상은 흔히 地位不一致(status inconsistency) 현상으로 간주해 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직업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속성의 結晶性 또는同一性에 있기 때문에, 만일 소위 「오차」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있다는 증좌로 볼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직업의 범주들이 반드시 학력과 소득에 따라 정연하게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직업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급의 지표로서 활용되는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될 수 없고, 직업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지 않는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다는 뜻도 포함한다.

참고로 직업을 건너 뛰어서 학력과 소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더

〈표 4〉 학력별 소득 분포

(%)

(교육연구)*

학 력	무학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문 (초급) 대 학 생		계
					학 생	학 생	
〔월평균가족소득〕							
10만원 미 만	39.4	29.8	18.5	8.9	3.0	1.5	13.9
10~20 만 원	44.3	43.4	46.5	37.7	28.4	10.5	33.9
20~30 ♂	8.2	16.2	20.1	25.0	32.8	15.1	19.8
30~40 ♂	4.9	6.0	8.3	11.4	11.9	17.2	10.9
40~50 ♂	3.3	2.3	3.5	9.8	11.9	16.0	8.5
50~100 ♂	—	1.1	2.8	5.0	7.5	30.2	9.6
100만원 이 상	—	1.1	.4	2.3	4.5	9.5	3.4
계	100.1	99.9	100.1	100.1	100.0	100.0	100.0
N =	61	265	254	440	67	325	1,412

(사회 발전 연구)**

10만원 미 만	59.8	30.3	14.3	7.2	5.3	4.8	17.6
10~20 만 원	34.1	39.8	38.1	26.5	23.4	3.8	30.4
20~30 만 원	3.7	20.8	24.2	26.2	18.1	19.0	21.6
30~40 만 원	—	5.6	11.9	16.7	19.1	16.2	12.0
40~50 만 원	2.4	2.5	5.3	8.4	8.5	16.2	6.6
50~70 만 원	—	.3	3.3	8.4	14.9	13.3	5.7
70~100 만 원	—	.7	1.6	1.9	6.4	13.3	2.8
100만원 이 상	—	—	1.2	4.7	4.3	13.3	3.3
계	100.0	100.0	99.9	100.0	100.0	99.9	100.0
N =	82	284	244	359	94	105	1,168

* tau C=.41

** tau C=.40

니,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두 연구에서 얻은 자료가 모두 고르게 tau C=.4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이 경우에도 고학력자의 저소득이 오차의 주된 원천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접근을 취해 보았다. 단순한 교차표가 아니라 직업의 소분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된 각 직업에 소요된 학력과 각 직업에서 일어지는 수입의 서열적 척도점수를 평균하여 비교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점수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학력평균의 순위와 소득평균의 순위 사이에 얼마만한 상관도 내지 순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소분류 직업별 학력 및 소득비교

	[교육연구]					[사회 발전연구]					
	N	학력 평균	소득 순위 평균	학력, 소득 순위 차이	A-B	N	학력 평균	소득 순위 평균	학력, 소득 순위 차이	C-D	
(농어업직)											
농업 노동	24	1.96	1 1.96	4	-3	16	1.94	1 1.73	1	0	
소농, 소작	229	2.55	6 1.98	5	1	99	2.27	3 1.84	3	0	
어선의선원	16	2.94	10 2.00	8	2	5	2.80	6 3.80	18	-12	
중농 이상	196	2.94	11 2.62	17	-6	110	2.65	5 2.30	5	0	
양봉업		1 3.00	13.5 3.00	20.5	-7						
어선선주							3	3.67	13 2.33	6	7
(판매·서비스직)											
노동자	30	2.43	3 2.30	12	-9	37	2.22	2 1.81	2	0	
행상	11	2.45	4 2.55	16	-12	6	3.00	7.5 3.00	11.5	-4	
이용사	2	2.50	5 1.50	1	4						
복덕방소개업자	7	2.86	8 1.87	3	5						
가축장사	1	3.00	13.5 2.00	8	5.5						
서비스업종업원	10	3.00	19.5 3.22	23	-3.5	9	3.22	9 2.67	8	1	
점원, 외판원	8	3.13	16 2.13	11	5	15	3.00	7.5 3.00	11.5	-4	
운전수	9	3.33	18 3.00	20.5	-2.5						
소규모가게주인						112	3.51	11 3.16	14	-3	
(생산, 기능직)											
목공	5	2.60	7 2.40	14	-7						
전습, 미숙련직	2	3.00	13.5 2.00	8	5.5	4	2.50	4 2.25	4	0	
반숙련직	9	2.89	9 2.33	13	-4	5	3.60	12 2.40	7	5	
숙련기능직	64	3.31	17 2.72	19	-2	54	3.24	10 2.70	9	1	
(사무직)											
잡금직 공무원	1	2.00	2 2.00	8	-6						
경찰관	2	3.50	19 2.00	8	11						
사회단체직원	7	4.43	21 2.43	15	6	4	4.00	17 4.00	19.5	-2.5	
일반공무원	96	4.46	22 2.68	18	4	59	4.14	18 3.12	13	5	
회사원, 은행원	103	4.90	23 3.48	24	-1	42	3.98	16 3.28	15	1	
(전문기술직)											
건축사	27	4.07	20 3.81	25	-5	8	3.75	14 2.88	10	4	
엔지니어	45	4.96	25 3.89	27	-2	19	4.26	19 3.58	17	2	
교원	36	5.11	27 3.14	22	5	18	3.89	15 4.41	21	-6	
(관리직)											
자영업체경영자	110	4.93	24 4.46	29	-5	30	4.27	20 4.67	22	-2	
사회단체간부	8	5.38	29 4.75	30	-1	1	6.00	26 6.00	24.5	1.5	
기업체간부	45	5.69	31 5.31	32	-1	5	5.00	23 6.60	26	-3	
고급공무원	7	5.86	32 5.43	34	-2	2	5.50	25 5.50	23	2	

	〔교육연구〕					〔사회 발전 연구〕				
	학력 N 평균		소득 N 평균		학력·소 득 순위 차이 A-B	학력 N 평균		소득 N 평균		학력·소 득 순위 차이 C-D
	A	B	C	D	C-D					
(전문직)										
작가, 예술가, 체육인	9 5.00	26 4.00	28	-2	3 4.33	21 3.33	16	5		
언론, 방송인	8 5.37	28 3.88	26	2	5 5.00	23 4.00	19.5	3.5		
약사	8 5.50	30 6.00	36	-6						
의사, 한의사	19 6.00	33.5 5.74	35	-1.5	3 5.00	23 6.00	24.5	-1.5		
변호사, 법조인	2 6.00	33.5 5.00	31	2.5						
교수, 연구가	22 6.27	35 5.36	33	2						
목사, 성직자	3 6.33	36 1.67	2	34						

 $r_s = .737, N = 36$ $r_s = .861, N = 26$

* 학력점수근거 : 1—무학력, 2—국민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초급)대, 6—4년제대학, 7—대학원

소득점수근거 : 1—10만원 미만, 2—10~20만원, 3—20~30만원, 4—30~40만원, 5—40~50만원, 6—50~100만원, 7—100만원 이상

우선 순위상관계수인 Spearman의 ρ 또는 r_s 를 계산해 본 결과는, 교육 연구 자료의 경우 .737, 사회발전 연구자료의 경우 .861로서 모두 의미있는 상관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조금 세부로 들어가서 살펴 보면, 학력 순위와 소득 순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들이 꽤 눈에 띠인다. 가장 두드러진 보기 몇 가지만 들어 보자. 가령 교육연구 자료에서 학력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들은 노동자, 행상, 목공 등이며 사회발전연구 자료에서는 어선의 선원, 점원이나 외판원, 교원 등이다. 그 반대로 학력에 비해 소득이 너무 낮은 보기들은 경찰관, 성직자(교육 자료)와 어선의 선주, 견습, 미숙련공, 작가, 예술가 등(사회발전 자료)이다.

이것을 좀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 3〉을 만들어 보았다. 사회발전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비교적 지위가 낮은 몇 개의 근로 및 농업직에 있어서는 학력과 소득 사이의 순위가 동일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있는 점이다. 그 나머지는 대체로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데, 그럼에도 상위층 직업에서의 학력—소득 等位性의 정도는 중간층 직업들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다 해도, 위의 분석에서는 앞서 직업 대분류 자료를 가지고 직업×학력, 직업×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데 비해서 상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몇 개의 예외를 빼고 직업들

그림 3. 소분류 직업별

(교 육 연 구)			
학력 순위	직업	직업	소득 순위
1	농업노동	이용사	1
2	임금직공무원	목사, 성직자	2
3	노동자	복덕방소개업자	3
4	행상	농업노동	4
5	이용사	소농, 소작인	5
6	소농, 소작인	어선의선원	6
7	목공	가축장사	7
8	복덕방소개업자	전습, 미숙련공	8
9	반숙련직	임금직공무원	9
10	어선의선원	경찰관	10
11	중농이상	점원, 외판원	11
12	양봉업	노동자	12
13	가축장사	반숙련직	13
14	서비스업종업원	목공	14
15	전습, 미숙련공	사회단체직원	15
16	점원, 외판원	행상	16
17	숙련기능직	중농이상	17
18	운전수	일반공무원	18
19	경찰관	숙련기능직	19
20	건축사	양봉업	20
21	사회단체직원	운전수	21
22	일반공무원	교원	22
23	회사원, 은행원	서비스업종업원	23
24	자영업체경영주	회사원, 은행원	24
25	엔지니어	건축사	25
26	작가, 예술가, 체육인	언론, 방송인	26
27	교원	엔지니어	27
28	언론, 방송인	작가, 예술가, 체육인	28
29	사회단체간부	자영업체경영주	29
30	약사	사회단체간부	30
31	기업체간부	변호사, 법조인	31
32	고급공무원	기업체간부	32
33	의사, 한의사	교수, 연구가	33
34	변호사, 법조인	고급공무원	34
35	교수, 연구가	의사, 한의사	35
36	목사, 성직자	약사	36

학력 및 소득순위 비교

학력별 소득순위 비교

(사 회 발 전 연 구)			
학력 순위	직 업	직 업	
1	농업노동	농업노동	1
2	노동자	노동자	2
3	소농, 소작인	소농, 소작인	3
4	건설, 미숙련공	건설, 미숙련공	4
5	중농 이상	중농 이상	5
6	어선의선원	어선의선주	6
7	행상	반숙련직	7
8	점원, 외판원	서비스업종업원	8
9	서비스업종업원	숙련기능직	9
10	숙련기능직	건축사	10
11	소규모가게주인	행상	11
12	반숙련직	점원, 외판원	12
13	어선의선주	일반공무원	13
14	건축사	소규모가게주인	14
15	교원	회사원, 은행원	15
16	회사원, 은행원	작가, 예술가, 체육인	16
17	사회단체직원	엔지니어	17
18	일반공무원	어선의선원	18
19	엔지니어	사회단체직원	19
20	자영업체경영주	언론, 방송인	20
21	작가, 예술가, 체육인	교원	21
22	기업체간부	자영업체경영주	22
23	언론, 방송인	고급공무원	23
24	의사, 한의사	사회단체간부	24
25	고급공무원	의사, 한의사	25
26	사회단체간부	기업체간부	26

을 크게 몇 가지 층으로 범주화한다면, 학력과 소득의 等位性을 크게 다치지 않고 분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직업의 대분류가 좀 조잡하다는 뜻이 되며, 대분류와 소분류를 잘 결충하면 꽤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범주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작업을 좀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부록 I 과 부록 II를 자료로 제공한다.

4. 직업분류에 의한 계급범주화

위에서는 주로 직업의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학력)과, 직업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이라는 두 가지 변수들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그 나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그러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직업이 사회계급의 지표로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가를 따져 보려는 데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직업활동은 사회계급 형성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는 말이다. 허두에서도 밝혔듯이, 이 방면의 연구는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시작해 왔기 때문에 우선 준거점을 근거가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김영모, 1969; 1978; Koo and Hong, 1980; 홍두승, 1983).

이 연구에서도 대략 이를 연구자들의 기준을 참조하여 직업에 의한 계급범주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 일 자체로서 그와 같은 계급범주화 접근이 의미있는지를 재검토함으로써 결과에 따라서는 계급구분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직업에 의한 계급구분 자체의 검토 뿐 아니라, 그러한 분류법이 어떤 어려움을 지니는가도 함께 탐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직업에 의한 계급범주별 학력 및 소득분포를 분석, 평가하기로 했고, 덧붙여 계급의식 내지 계층귀속의식의 분석도 곁들이기로 했다. 다행히 사회발전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었고, 그전의 교육연구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階級區分 먼저 홍두승의 연구(1983)를 기준으로 삼아 직업에 따른 계급구분을 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기서 활용한 자료가 전국표본에 의거한 것이라 해도 그 규모가 1천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약간의 조정이 불가

〈표 6〉 직업에 의한 계급구분

조정한 계급범주	직업종류	교육연구 사회발전연구	홍교수 연 구 (1980)	직업종류
중상계급	고위전문직(의사, 변호사, 법조인, 교수, 연구가)	7.8	6.1	1.8
	고위관리직(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간부)			고위전문직, 관리직
신중간계	전문기술직(작가, 예술가, 언론방송인, 약사, 성직자, 체육인, 엔지니어, 건축사, 교원)	25.0	24.6	17.7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사회단체직원, 경찰관)			하위전문직, 감독자, 하위공무원, 회사직원, 판매중사자, 경찰관 등
구중간계	자영업체경영주, 소규모가게주인	19.0	15.6	20.8
근로계급	기능생산직(숙련공, 기능공, 반숙련공, 미숙련공)	7.3	10.8	22.6
	서비스업종사직(점원, 의판원, 운전사, 서비스종업원, 기타)			서비스업종사자, 생산감독, 숙련공, 반숙련공, 미숙련공
도시하류계	행상, 노동자, 경비원, 실직자	5.1	12.4	5.9
농촌부문	소작, 소농, 중농 이상	34.0	28.2	23.2
	농업노동	1.9	2.2	8.1
	계(N)	100.1	99.9	100.0
		(1,526)	(1,220)	(154,630)

피하였음을 밝혀 둔다. 수정된 내용과 홍교수의 구획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 〈표 6〉을 제시한다. 여기 제시하는 홍교수의 자료는 이 글 앞장에 그가 보고한 글에서 따온 것으로 인구센서스 자료의 표본이다. 이 중 몇 가지 특기할 사항만 지적하면, 첫째로 우리의 두 가지 표본조사 자료에서는 중상계급과 신중간계급 말 농촌의 독립자영농부문이 홍교수의 자료보다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표본추출 과정에서 생긴 편기현상이 아닐까 여겨진다. 둘째로, 그런 만큼 특히 근로계급이 월등하게 표집되었고, 사회발전연구의 경우 구중간계급의 비중이 너무 작고 도시하류계급이 좀 많은 편이 되었다.

어쨌든, 중상계급을 제외한 신·구중간계급의 상대적 비중은 교육연구에서는 43%, 사회발전 연구에서는 40.2%이고, 홍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38.5%로서 그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으므로, 대략 중간계급이 4할 내외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표본의 성격을 감안하고, 이와 같은 계급범주들은 과연 어떤 사회 경제적 속성의 차이를 드러내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階級範疇와 學力 및 所得 이론적으로, 계급이란 경제적인 市場能力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이미 밝혔고 또 그 시장능력의 지표로서 가장 분명한 것이 교육이며,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직업을 통한 소득의 취득이라고 하는 점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계급범주들은 이 두 가지 변수에 있어서 서로 배타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표 7>과 <표 8>을 마련하였다.

먼저 교육연구의 자료에서는 tau C의 값이 학력의 경우 .48, 소득의 경우 .32인데 비해서, 사회발전연구의 자료에서는 그것들이 각각 .24, .21로 비

<표 7> 계급범주별 학력 및 소득분포(교육연구) (%)

계급범주	농촌부문	도시하류계급	근로계급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상중상계급	계
	35.9	5.1	7.3	19.0	25.0	7.8	
[학력]*							
무학력	10.4	7.4	3.1	.4	—	—	4.4
국민학교	38.5	45.6	18.4	6.3	2.7	—	19.3
중학교	25.5	32.4	40.8	14.5	7.4	1.9	18.5
고등학교	22.2	13.2	34.7	42.7	41.4	12.4	30.6
전문(초급)대학	1.4	—	1.0	7.8	9.8	4.8	4.9
대학 이상	2.1	1.5	2.0	28.3	38.7	80.9	22.3
계	100.1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
N =	483	68	98	255	336	105	1,345
[월평균가족소득]**							
10만원 미만	30.3	19.1	11.2	2.7	3.3	.9	14.1
10~20만원	41.1	50.0	46.9	26.6	30.7	3.7	33.7
20~30◇	15.4	26.5	22.4	18.4	29.8	8.5	20.1
30~40◇	6.0	—	10.2	16.1	16.4	12.3	11.0
40~50◇	3.9	1.5	4.1	13.3	11.3	18.9	8.6
50~100◇	2.1	1.5	4.1	15.3	7.2	43.4	9.2
100만원 이상	1.2	1.5	1.0	7.5	1.2	11.3	3.2
계	100.0	100.1	99.9	99.9	99.9	100.0	99.9
N =	482	68	98	255	335	105	1,343

* tau C=.48

** tau C=.32

〈표 8〉 계급범주별 학력 및 소득분포(사회발전연구) (%)

계급 범주	농촌부문	도시하류계급	근로계급	구중간계	신중간계	상중상계	계
	30.4	12.4	10.8	15.6	24.6	6.1	
[학력]*							
무학력	16.9	15.2	3.8	3.5	.5	—	8.1
국민학교	44.9	38.1	18.8	24.4	5.5	8.9	26.1
중학교	20.5	38.1	38.8	23.5	13.7	13.3	23.0
고등학교	14.7	7.6	35.1	37.4	51.6	35.5	29.9
전문(초급)대학	1.8	1.0	2.5	6.1	15.9	15.6	6.8
대학 이상	1.3	—	1.2	5.2	12.6	26.6	6.1
계	100.1	100.0	100.2	100.1	99.8	99.9	100.0
N =	225	92	80	115	182	45	739
[월평균가족소득]**							
10만원 미만	38.3	33.0	11.4	11.4	4.5	—	19.6
10~20만원	35.5	43.2	40.5	26.3	30.3	6.7	32.4
20~30만원	15.9	17.0	25.3	28.1	26.4	15.6	21.6
30~40만원	5.6	2.3	10.1	17.5	15.2	20.0	10.9
40~50만원	2.3	—	10.1	7.0	9.0	15.6	6.1
50~70만원	.9	1.1	2.5	4.4	5.6	22.2	4.2
70~100만원	.5	1.1	—	2.6	2.8	6.7	1.8
100만원 이상	.9	2.3	—	2.6	6.2	13.3	3.3
계	99.9	100.0	99.9	99.9	100.0	100.1	99.9
N =	214	88	79	114	178	45	718

* tau C=.24

** tau C=.21

교적 낮다는 것이 눈에 띤다. 이는 앞서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 분석에서 보여 준 결과와 비슷하다. tau 값이 .5에 가까운 것은 그만큼 오차가 적다는 말인데, 그런 반면 역시 오차는 상당히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계급서열과 학력과의 사이 계급과 소득범주 사이에는 1대 1의 완벽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이런 성향은 사회발전연구의 자료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농촌부문은 그 범위가 농업노동에서부터 중농 이상에 이르는 것이므로 학력과 소득의 분포가 그런대로 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도시하류계급 및 근로계급의 고학력, 고소득 범주들과 중간층 이상 계급들에게서 보이는 저학력, 저소득 범주들 때문이다. 여

기에는 분명히 자료 자체의 한계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런 표본오차와 응답의 선뢰도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직업에 의거한 계급범주들이 그 사회경제적 속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 말은 그와 같은 계급구분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실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한 계급범주라 해도 학력이나 소득 변수로 볼 때 배타적인 차이를 확연히 보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 점은 계층 내지 계급 귀속 의식과 관련해서 분석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階級歸屬意識과 階級 계급의 사회적 의의는 그것이 어떤 객관적 요인의 작용으로 구조지워지느냐 하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주관적 현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서도 추적 할 만하다. 가령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아 일정한 계급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같은 의식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한 의식 가운데에는 계급적 正體意識, 소속감, 歸屬意識 같은 것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계급적 구조지음의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계급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階級意識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 계급론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의식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고 의식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Giddens, 1973; 김경동, 198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려니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직접 다루고자 하는 관심사는 일종의 계급의식과 관련있는 태도적 특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교육연구보다 1년 뒤에 실시한 사회발전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소속한다고 생각하는 「層」을 지적해 주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일종의 계층귀속의식 자료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먼저 실시했던 교육연구에서는 미처 그런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운 자료에 의존할 길 밖에 없었다. 그 간접자료란 다름 아니라, 자신이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 이른바 自我碇泊尺度(the self-anchoring scale)라는 주관적 평가척도에 의해 얻은 응답이다. 가장 훌륭하고 바람직스런 삶을 10으로, 가장糟糟 인생을 0으로 잡

은 「삶의 사다리」에서 스스로의 현재생활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위 두 가지 주관적 태도 자료를 계급범주, 직업, 학력 및 소득별로 분석해 본 자료가 <표 9>와 <표 10>에 담겨 있다.

먼저 <표 9>의 사회발전연구 자료는 「제일 못사는 층」에서 「제일 잘 사는 층」까지 일곱개 층을 제시하여 얻은 응답을 계급, 직업, 학력, 소득과 교차한 결과이다. 별도로 금을 그어 구획한 범위 밖의 숫자들이 상당히 있고 또 tau C의 값이 .117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인 것으로 미루어, 우리가 직업에 의해 구분한 계급범주들은 계층귀속의식 면에서 배타적으로 다른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업과의 교차표에서는 더더욱 상관도가 낮게 나오고(tau C=.089), 오히려 학력(.274), 소득(.354)과의 관계가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사는 의식은 당장의 소득을 가장 밀접히 반영하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직업에 따라 구획하는 계급범주화의 접근이 지닐 것으로 보이는 한계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급구분법 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사람들의 계층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귀속의식에 어떤 특이한 성향이 있음을 시사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르면 중간 정도 또는 중간 보다 약간 못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65%를 넘고 있으며, 그런대로 잘 사는 층도 넓은 범위의 중간층에 포함시키면 74%가 이에 속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업에 의하여 분류한 계급범주에서 볼 수 있었던 중간계급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중간층 귀속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해서 상층에 속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지위를 낮추어 보는 데 반하여, 하층에 속하는 이들은 약간 높이 보는 일반적 성향이 이 자료에서도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간접자료이긴 해도 고려해 볼 만한 삶의 사다리 척도 자료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계층적, 사회경제적 위치를 증거로 삼은 평가가 아니고 또 그 분포의 범위가 0에서 10이라는 넓은 폭을 가졌기 때문에, 객관적 변수들과의 상관도에 크게 기대할 바는 못된다. 그럼에도 tau C 값이 .132에서 .223에 이르는 낮지만 고른 값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치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고 보면, 세부로 분석함으로써 오차가 상당히 드러나는 것을 감싸줄 도리가

〈표 9〉 계급, 직업, 학력, 소득별 계층귀속의식(사회발전연구) (%)

귀속계층	중간보 제일못 다훨센 다양간 중간정 그런데 폐 제일잘 사는총							계 N
	제일못 사는총	다훨센 못사는 총	중간보 다양간 도사는 총	중간정 도사는 는총	그런데 로질사 는총	폐 사는총	제일잘 사는총	
	8.6	16.6	30.6	35.0	8.4	.7	.1	100.0 (1,214)
[계급범주]*								
농 촌 부 문	11.9	19.5	28.8	32.3	7.1	.4	—	100.0 226
도시 하류 계급	19.6	32.6	26.1	16.3	5.4	—	—	100.0 92
근로 계급	7.6	17.7	41.8	27.8	5.1	—	—	100.0 79
구 중간 계급	6.1	21.7	34.8	31.3	6.1	—	—	100.0 115
신 중간 계급	2.2	16.7	33.3	38.9	8.9	—	—	100.0 180
상류, 중상계급	6.7	8.9	15.6	46.7	17.8	4.4	—	100.1 45
[직업]**								
농, 어업 직	12.0	19.6	29.1	32.0	6.8	.4	—	99.9 234
판매, 서비스직	11.6	26.3	30.5	25.3	6.3	—	—	100.0 190
생산직	6.2	16.9	44.6	26.2	6.2	—	—	100.1 65
사무직	2.8	15.7	36.1	39.8	5.6	—	—	100.0 108
전문기술직	—	13.5	28.8	42.3	15.4	—	—	100.0 52
판리직	7.1	9.5	14.3	47.6	19.0	2.4	—	99.9 42
전문직	3.8	15.4	26.9	26.9	19.2	7.7	—	99.9 26
[학력]***								
무학력	28.1	37.1	22.5	10.1	2.2	—	—	100.0 89
국민학교	14.6	20.7	33.6	24.7	6.1	.3	—	100.0 295
중학교	7.1	17.5	37.7	29.4	8.3	—	—	100.0 252
고등학교	4.6	12.3	31.9	42.9	8.3	—	—	100.0 373
전문(초급)대학	1.0	12.2	21.4	51.0	12.2	2.0	—	99.8 98
대학 이상	.9	5.6	15.9	55.1	16.8	4.7	.9	99.9 107
[소득]****								
10만원 미만	24.4	24.4	28.3	18.0	4.9	—	—	100.0 205
10~20 만 원	10.1	24.2	37.2	25.1	3.1	.3	—	100.0 355
20~30 만 원	4.0	15.2	37.2	36.4	6.8	.4	—	100.0 250
30~40 만 원	.7	6.4	33.6	50.7	8.6	—	—	100.0 140
40~50 만 원	—	3.9	15.6	62.3	14.3	2.6	1.3	100.0 77
50~70 만 원	3.0	4.5	10.4	65.7	16.4	—	—	100.0 67
70~100 만 원	—	3.0	3.0	42.4	45.5	6.1	—	100.0 33
100만원 이상	—	—	18.4	44.7	31.6	5.3	—	100.0 38

* tau C=.117

** tau C=.089

*** tau C=.274

**** tau C=.354

〈표 10〉 계급, 직업, 학력, 소득별 생활상태평가(교육연구) (%)

생활상태 평가점수	0	1	2	3	4	5	6	7	8	9	10	계
	4.0	1.1	4.3	7.9	8.4	34.1	12.6	13.8	7.9	1.9	3.8	
[계급범주]*												99.8(1,409)
농 촌 부 문	3.3	1.9	4.4	11.1	7.9	38.4	10.4	10.4	5.4	2.7	4.0	99.9 479
도시 하류 계급	7.7	—	10.8	13.8	10.8	40.0	7.7	6.2	3.1	—	—	100.1 65
근로 계급	8.2	2.0	5.1	12.2	10.2	38.8	12.2	4.1	4.1	—	3.1	100.0 98
구 중 간 계급	4.3	1.2	3.9	6.7	12.2	27.2	13.4	16.5	10.2	1.6	2.8	100.0 254
신 중 간 계급	3.3	.6	3.6	5.1	7.2	34.3	15.8	15.5	9.6	1.5	3.6	100.1 335
상류, 중상계급	1.0	—	1.9	1.0	3.8	24.8	10.5	28.6	17.1	3.8	7.6	100.1 105
[직업]**												
농, 어업직	3.3	1.9	4.4	11.1	7.9	38.4	10.4	10.4	5.4	2.7	4.0	99.9 479
판매, 서비스직	5.3	.5	5.3	11.1	11.6	35.3	13.5	9.2	5.3	—	2.9	100.0 207
생산직	10.0	2.5	6.3	12.5	11.3	35.0	11.3	5.0	3.8	—	2.5	100.2 80
사무직	1.9	.5	4.8	5.3	7.7	33.2	15.4	16.3	9.1	1.9	3.8	99.9 208
전문기술직	6.3	.9	1.8	5.4	6.3	33.3	17.1	15.3	9.0	.9	3.6	99.9 111
관리직	2.3	1.2	2.9	1.7	8.1	24.3	12.1	26.0	15.0	3.5	2.9	100.0 173
전문직	—	—	2.5	1.3	3.8	26.3	13.8	22.5	15.0	2.5	12.5	100.2 80
[학력]***												
무학력	10.0	3.3	5.0	11.7	16.7	31.7	10.0	8.3	1.7	—	1.7	100.1 60
국민학교	5.6	.4	5.3	10.5	9.8	38.3	9.4	11.3	5.3	1.9	2.3	100.1 266
중학교	4.0	2.8	3.2	12.4	8.8	33.6	12.4	11.6	6.0	1.6	3.6	100.0 250
고등학교	3.0	.9	5.5	7.3	8.9	35.8	13.0	13.9	5.9	1.6	4.1	99.9 438
전문(초급)대학	6.0	3.0	1.5	3.0	7.5	28.4	25.4	9.0	11.9	1.5	3.0	100.2 67
대학 이상	2.8	—	3.1	3.7	4.6	30.2	12.9	19.7	14.5	3.1	5.5	100.1 325
[소득]****												
10만원 미만	7.1	2.6	7.1	13.8	11.7	35.7	7.1	6.6	4.6	.5	3.1	99.9 196
10~20만원	5.2	2.1	4.0	9.4	10.1	38.0	10.9	11.6	4.2	1.0	3.4	99.9 476
20~30만원	3.2	—	5.4	10.8	8.3	30.6	16.2	13.3	6.5	2.2	3.6	100.1 278
30~40만원	1.3	—	2.6	2.6	8.4	39.6	14.9	13.6	9.7	2.6	4.5	99.8 154
40~50만원	3.4	.8	1.7	4.2	5.9	28.6	10.9	24.4	14.3	2.5	3.4	100.2 119
50~100만원	1.5	—	1.5	.7	2.2	28.9	18.5	24.4	13.3	5.2	3.7	99.9 135
100만원 이상	2.1	—	4.2	—	4.2	18.8	12.5	14.6	29.2	2.1	12.5	100.2 48

* tau C=.132

** tau C=.139

*** tau C=.159

**** tau C=.223

없는 값이다. 교차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런 「오차」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계급범주가 배타적으로 완벽하게 계층의식 또는 삶의 상황의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계급을 구분하는 접근을 취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업에 의한 계급분류법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로 간주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와 같은 계급구분이라는 작업이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는 좋은 보기로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계급범주화는 매우 조심스럽고 그 자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은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사회 발전연구의 原資料에서 얻은 직업 小分類와 계층귀속의식 교차표를 부록 Ⅲ에다 따로 제공하니, 후일의 작업에 활용하기 바란다.

5. 討論

지금까지 職業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경험적 자료(표본조사 자료)에 의하여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요건인 學歷과 또 직업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 내지 소득을 직업과 교차시켜 봄으로써 이를 검토하였거니와, 이를 세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정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완벽한 게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이 현상 자체는 일종의 地位不一致로 간주해서 틀림없거니와, 그것이 계급의 구조지움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그리 단순치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어, 기본적으로 직업을 바탕삼아 새로 구획한 계급범주를 가지고 다시 그 사회경제적 속성과 아울러 주관적 의식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도 그 상관관계는 정의 관계이지만 매우 낮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직업에 의거한 계급구분 방법에서 문제의 소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층귀속의식 또는 그와 비슷한 의식이 계급 범주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 보면서, 이를 재검토하는 뜻에서 직업, 학력 및 소득 등에 따른 의식의 차이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여전히 직업에 의한 계급범주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의식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으되, 그 오차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그쳤다.

다시 그와 같은 계급구분법의 문제점을 주목할 도리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적어도 자료의 기술적인 오차의 범위를 얼마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현대와 같이 복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계급구분을 시도한다 해도 그만한 오차는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계급적 구조지음 자체가 결코 고정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모든 계층이 일단은 上昇移動을 겪 낭한 上向志向性이랄까 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고 보면, 당분간 계급적 구조지음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계급개념을 경험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일은,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훨씬, 그리고 근본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직업문화와 사회경제적 다원화의 정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의 확인은 개념적으로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것을 경험적으로 꼬집어 보인다는 일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계급이 경제적인 기준에 입각한 수직적 사회문화의 범주를 지칭하는 한에서는 의미있는 개념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적 자원배분의 불평등 현상도 지속될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고전적인 계급처럼 그 구획이 명확하다거나, 경험적, 실증적 확인이 용이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물론 계급 그 자체의 확인이나 성격규명이 목적이 아닌 만큼 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니와 적어도 경험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이 취급하고 적용하는 개념일 것 같으면, 그 경험적 준거는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이었으므로, 이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계급구분의 쟁점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도 여기서 시도한 것은 극히 초보적인 데 그치므로 앞으로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되며, 또 더 광범위한 직업자료에 대한 분석을 권하고 싶다.

〈參 考 文 獻〉

김 경 동

- 1970 「종업원의 직장 만족도 측정을 위한 2개의 척도」, 『행동과학』, 제2권 제1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1970 『실업교육과 직업』, 서울대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 1979a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권 제3호.
- 1979b 「직업평가에 의한 기회구조의 인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권 제3호.

김 영 모

- 1969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 박사 회갑 기념 논총』.
- 1978 「도시社会의 직업 및 계층구조」, 『사회복지연구』, 제12집.

김 진 균

- 1968 「기업체 종사원의 합리적 시스템에의 적응 평가」, 『경영논집』, 제2권 제2호, 서울대 상대 한국 경영 연구소.

최 흥 기

- 1969 「산업화 과정에 따르는 태도 및 가치의 변화」,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논문집』, 인문편.
- 1970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변화」, 『성곡논집』 제1집.

홍 두 승

-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社会의 전통과 변화』, 범 문사 : 169—213.

홍승직 · 노길명

- 1976 「사무직 종사자들의 직장 적응 연구」, 『아세아연구』, 제19권 제1호.

황 성 모

- 1963 「한국 공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조사보고서」.

Blau, P.M. and O.D. Duncan

-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Dubin, R.

- 1976 *Handbook of Work, Organization, and Society*, Chicago: Rand McNally.
Giddens, A.

-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Gross, E.

- 1965 *Industry and Social Life*, Dubuque, Iowa: Wm C. Brown.

Harvey, E.B.

- 1975 *Industrial Society*, Homewood, Ill.: Dorsey.

Hodge, R.W. and D.J. Treiman, and P.H. Rossi

- 1966 "A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prestige," in R. Bendix and S.M. Lipset(eds.), *Class, Status, and Power*, 2nd ed. New York: Free Press: 309—315.
- Kim, Kyong-Dong
1979 *Man and Society in Korea's Economic Growth: Sociological Stud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oo, Hagen and Doo-Seung Hong
1980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August): 610—626.
- Miller, D.C. and W.H. Form
1964 *Industrial Sociology*. New York: Harper and Row.
- Moore, W.E.
1965 *The Impact of Indust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rse, N.C. and R.S. Weiss
1955 "The function and meaning of work and the job,"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April): 191—198.
- Pavalko, R.M.
1971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ca, Ill.: F.E. Peacock Pub. Inc.
- Wright, E.O.
1980 "Class and Occupation," *Theory and Society* 9 (January) : 177—214.

부록 I. 소분류 직업별 학력 및

직업(소분류)	(학력)						계
	무학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상	
어업	1	5	5	4	1	—	16
농업 노동	8	10	3	2	—	—	23
소농, 소작인	27	100	56	45	1	1	230
중농 이상	14	67	53	49	5	8	196
노동자	2	14	9	4	—	1	30
행상	1	7	—	3	—	—	11
서비스업종업원	—	3	4	3	—	—	10
점원, 외판원	—	3	3	1	—	1	8
기타 서비스직	—	1	3	3	—	1	8
복덕방	—	3	2	2	—	—	7
운전사	—	1	4	4	—	—	9
소규모가게주인	—	14	28	75	8	20	145
미숙련, 반숙련공	—	3	6	2	—	—	11
숙련, 기능공	3	9	27	28	1	1	69
기타 공무원, 사무원	—	2	1	2	—	—	5
사회 단체 직원	—	—	1	4	—	2	7
일반 공무원	—	3	4	58	5	24	94
회사원, 은행원	—	2	8	38	10	45	103
교원	—	1	1	9	9	16	36
건축사	—	—	3	11	1	12	27
엔지니어	—	1	4	13	7	20	45
자영업체경영주	1	2	9	34	12	52	110
사회 단체 간부	—	—	1	1	—	6	8
고급 공무원	—	—	—	1	—	6	7
기업체간부	—	—	1	7	2	35	45
약사	—	—	1	—	1	6	8
성직자	—	—	—	—	—	3	3
작가, 예술가, 체육인	—	—	2	1	1	5	9
언론, 방송인	—	—	1	1	—	6	8
교수, 연구가	—	—	—	1	1	20	22
변호사, 법조인	—	—	—	—	—	2	2
의사, 한의사	—	—	—	2	1	15	19

소득분포(교육연구) : 實數

(소 득)										계
10 만 원 미	만 원	10 ~ 20 원	20 ~ 30 원	30 ~ 40 원	40 ~ 50 원	50 ~ 100 원 이	100 만 원 상	만 원	상	
3	10	3	—	—	—	—	—	16		
11	8	2	1	2	—	—	—	24		
98	89	22	11	5	2	2	2	229		
32	84	42	15	11	7	4	4	195		
2	19	8	—	1	—	—	—	30		
2	5	3	—	—	—	1	1	11		
1	3	2	2	1	1	—	—	10		
2	4	1	1	—	—	—	—	8		
2	3	1	1	—	1	—	—	8		
2	4	1	—	—	—	—	—	7		
—	3	4	1	1	—	—	—	9		
4	50	31	23	21	12	4	4	145		
2	5	3	1	—	—	—	—	11		
6	34	16	6	3	3	1	1	69		
—	4	—	—	1	—	—	—	5		
1	3	2	1	—	—	—	—	7		
4	42	33	8	6	—	—	—	93		
3	29	25	21	15	8	2	2	103		
1	9	16	5	4	1	—	—	36		
1	6	3	10	2	4	1	1	27		
1	6	16	6	7	8	1	1	45		
3	18	16	18	13	27	15	15	110		
1	—	1	1	1	3	1	1	8		
—	—	—	1	2	4	—	—	7		
—	—	4	5	11	21	4	4	45		
—	—	—	1	1	3	3	3	8		
2	—	1	—	—	—	—	—	3		
—	2	3	—	1	3	—	—	9		
—	1	1	4	2	—	—	—	8		
—	1	3	3	5	9	1	1	22		
—	—	—	1	—	1	—	—	2		
—	1	1	1	1	9	6	6	19		

부록 II. 소분류 직업별 학력 및

직업(소분류)	(학력)						계
	무학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상	
(농 어 업)							
선원	—	2	2	1	—	—	5
선주	—	—	1	2	—	—	3
농업노동	7	5	2	2	—	—	16
소농, 소작	18	53	12	15	1	—	99
중농이상	13	43	32	16	3	3	110
(서비스직)							
노동자, 기타	7	21	13	6	1	—	48
행상	—	3	1	1	1	—	6
서비스직(종업원)	1	—	5	2	1	—	9
점원, 외판원	1	4	4	6	—	—	15
소규모가게주인	4	28	26	41	7	6	112
(생산직)							
전습, 미숙련공기타	1	3	2	1	—	—	7
반숙련공	—	1	1	2	—	1	5
숙련기능공	1	9	21	22	—	1	54
(사무직)							
사회단체직원, 기타	—	—	3	4	1	—	8
일반공무원	—	2	5	39	10	3	59
회사원, 은행원	—	2	7	27	3	3	42
(전문기술직)							
교원	—	—	—	1	9	8	18
건축사	—	2	1	4	—	1	8
엔지니어	—	—	4	9	3	3	19
(관리직)							
자영업체경영자기타	—	4	5	13	6	6	34
사회단체간부	—	—	—	—	—	1	1
고급공무원	—	—	—	—	1	1	2
기업체간부	—	—	—	3	—	2	5
(전문직)							
언론, 방송인	—	—	—	2	1	2	5
작가, 예술가	—	—	—	2	1	—	3
의사	—	—	1	—	—	2	3

소득분포(사회발전연구) : 實數

(소 득)									계
10만원 미 만	10~20 만 원	20~30 만 원	30~40 만 원	40~50 만 원	50~70 만 원	70~100 만 원	100 이 만 원	상	
1	1	—	1	—	2	—	—	—	5
—	2	1	—	—	—	—	—	—	3
7	7	—	—	1	—	—	—	—	15
43	32	10	7	—	1	—	—	—	93
32	37	24	5	4	1	1	2	—	106
17	18	9	—	—	2	1	—	—	47
—	1	4	1	—	—	—	—	—	6
1	4	2	1	1	—	—	—	—	9
1	8	1	2	2	—	—	1	—	15
13	28	31	20	8	5	3	3	—	111
—	3	3	1	—	—	—	—	—	7
—	3	2	—	—	—	—	—	—	5
7	21	13	5	7	—	—	—	—	54
—	2	1	2	1	2	—	—	—	8
4	19	18	9	5	1	—	3	—	59
1	13	11	6	6	—	—	2	—	39
—	—	8	3	—	2	1	3	—	17
—	5	1	1	—	1	—	—	—	8
1	5	6	2	—	3	1	1	—	19
—	3	7	7	6	6	2	3	—	34
—	—	—	—	—	1	—	—	—	1
—	—	—	—	1	—	1	—	—	2
—	—	—	1	—	3	—	1	—	5
1	1	—	1	1	—	1	—	—	5
—	2	—	—	—	1	—	—	—	3
—	—	—	1	—	—	—	2	—	3

부록 III. 소분류 직업별 계층귀속의식(사회발전연구) : 實數

직업(소분류)	제일못 사는총	중간보 다훨씬 못한총	중간보 다약간 못한총	중 경 사는총	간 도 로 사는총	그런데 잘 사는총	폐 잘 사는총	제일잘 사는총	계
(농 어 업)									
선 원	1	—	3	1	—	—	—	—	5
선 주	—	2	—	1	—	—	—	—	3
농업 노동	6	4	4	1	1	—	—	—	16
소 농, 소 작	18	27	31	22	2	—	—	—	100
중 농 이 상	3	13	30	50	13	1	—	—	110
(서비스직)									
노동자, 기 타	12	17	10	5	4	—	—	—	48
행 상	1	2	2	—	1	—	—	—	6
서비스직(종업원)	1	3	1	4	—	—	—	—	9
겹 원, 외판원	1	5	5	4	—	—	—	—	15
소규모가게주인	7	23	40	35	7	—	—	—	112
(생 산 직)									
견습, 미숙련공 기타	1	1	3	2	—	—	—	—	7
반숙련공	—	—	3	2	—	—	—	—	5
숙련, 기능공	3	10	23	13	4	—	—	—	53
(사 무 직)									
사회단체직원 기타	—	1	—	5	2	—	—	—	8
일반공무원	2	9	21	24	2	—	—	—	58
회사원, 은행원	1	7	18	14	2	—	—	—	42
(전문기술직)									
교 원	—	1	7	7	3	—	—	—	18
건축사	—	4	1	2	—	—	—	—	7
엔지니어	—	1	6	10	2	—	—	—	19
(관리직)									
자영업체경영자기타	3	4	5	15	6	1	—	—	34
사회 단체 간부	—	—	—	1	—	—	—	—	1
고급공무원	—	—	—	2	—	—	—	—	2
기업체간부	—	—	1	2	2	—	—	—	5
(전문직)									
언론, 방송인	—	1	1	1	2	—	—	—	5
작가, 예술가	—	2	—	—	—	1	—	—	3
의사	—	—	1	1	—	1	—	—	3